

## 영국 성 요셉 호스피스 (St. Joseph's Hospice)

노 유 자 (한국 호스피스 협회장)

영  
○ 국 런던에서 유럽 완화요법(Palliative Care) 협회와 자선 단체인 Mary Curie Cancer Care의 주관으로 열리는 학회를 참석하고 호스피스 기관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작년 9월 3주간의 일정으로 성빈센트 호스피스와 과장인 김정선 수녀님과 함께 영국과 아일랜드를 다녀왔다.

이 학회에는 전 세계에서 2,00여 명의 관련자가 참석하였는데, 많은 참석자를 보면서 호스피스와 완화요법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

학회 참석 후 영국 런던의 St. Christopher Hospice, Liverpool과 New Castle의 Marie Curie Cancer Care, 그리고 Woodland의 낮 호스피스 등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는 시설, 환경, 인력 구조, 운영자들의 정신, 게다가 재원도 국가에서 40%, 기금으로 60%를 충당하고 있었다.

그중에 내가 만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호스피스 기관과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 신부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Liverpool Thornton의 St. Joseph's Hospice와 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Francis O'Leary 신부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성요셉 호스피스는 영국 런던에서 흔히 알려진 자비회 수녀들이 운영하는 성요셉 호스피스와는 다른 곳이다.

성요셉 호스피스(St. Joseph's hospice)는 「작은 기적의 집」이라고 불리어 진다. 이 호스피스의 모토는 '영적, 그리고 실제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오아시스'이다. 이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내가 좀처럼 듣지 못한 특이한 이유에서였다. 35년전인 1962년, 마더 데레사를 방문하기 위해 칼커타로 가던 도중, Francis O'Leary 신부님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 남자와 파키스탄에서 집도 절도 없이 병들어 쓰러져 있는 Jacob 부인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낀데서부터 시작되었다. Jacob부인은 죽기전 3개월 가량 중풍에 시달려, 말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조차도 없었다. 신부님은 이 부인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돌보아줌으로써 죽는 순간까지 평화롭게 살다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안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O'Leary 신부님은 Mrs. Jacob

과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껴 1964년 처음으로 Parkistan의 Rawalpindi에 호스피스를 건립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인도, 중미 아메리카 Honduras, Guatemala, Mexico City에, 남미의 Colombia, Peru, Ecuador에, 영국의 Liverpool 과 Ormskirk에 호스피스 기관들을 설립하였고, Ireland의 Knock에 또 하나의 호스피스를 세울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본인은 영국 Liverpool,

Thornton의 Ince에 위치한 성요셉 호스피스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은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Dum Spiro Spero"라는 정신을 강조하는

The Academy of Spiritual and Physical Endeavour라는 이름을 붙인 아담한 2층집과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La Casa de San Jose 건물이 있었다. 이 호스피스를 찾아가 보았는데, 그곳은 그 입구에서부터 백년 이상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맞이했고, 이곳 저곳의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로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신부님과 수녀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호스피스 건물 안으로 안내되어, 신부님과 점심식사를 한 후 video와

책,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호스피스의 시작 동기와 협회가 되기까지의 설명을 듣는 동안 마치 한 권의 소설을 읽는 듯했다.

이 호스피스는 성요셉과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활동이 세계적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다. 사람들은 이 호스피스를 "작은 기적의 집"이라고들 부르는데 실제로 보니 그럴만하다. 왜냐하면 환자와 그 가족 및 의료진은 드넓은 정원과 공원들에서 살고 있고, 아름다운 나무

들은 고통스럽고 지루한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어, 환자들로 하여금 자연을 통한 영적인 풍요로움과 평화를 안겨다 주는 듯하였기 때문이다.

이 집에는 50병상이 운영되는데, 건물이나 시설은 우리나라 같으면 백명이 훨씬 넘게 생활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었다. 요셉관 건물의 2층 중심에 있는 예쁘고 아담한 성당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리벽으로 되어 있고, 벽쪽에는 O'Leary 신부님의 마음을 감동 시켰던 첫 환자 Jacob 부인과 켈커타의 길거리에서 만났던 쓰러져 누워있던 남자의 사진과 Parkistan의 국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성당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8개의 안락한 독방이 있어 방마다 환자들이 성



▲ Liverpool의 St. Joseph's Hospice에서 Francis O'Leary 신부님과 함께

당을 바라보며 영적인 도움을 받고, 또한 방의 창문쪽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대자연과 새들을 보며 평화롭게 누워있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각 방을 순회하면서, 환자 한분 한분에 대해 자상히 설명해 주시며 우리에게 환자마다 Kiss의 인사를 시켰다. 환자들은 마치 신부님은 예수님처럼, 혹은 친아버지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다른 호스피스보다 환자들의 표정이 아주 밝아서 내가 신부님께 아픈 환자들 같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가 와서 그런가요?”하고 농담을 하니 “물론, 그러나 늘 주님과 우리 착한 수녀들과 직원들, 봉사자들의 덕택이에요.”라고 말씀하시며 밝은 웃음을 짓는 신부님의 모습에서 따뜻한 예수님을 뵈는 듯하였다. 내 마음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부님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1층에는 사무실과 협회 사무실 교육장들이 있었다. 다음에는 옆 건물인 La Casa de San Jose로 갔다. 그곳에는 여러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만족해 하는 모습이었다. 이곳에는 라운지, 넓은 식당, 고전음악과 춤 기타 활동을 할 수 있게 마련된 오락실과 강의실이 있고, 옆에는 또 성당이 있어 직원, 가족 후원자들, 활동이 가능한 환자들은 매일 미사를 하고 있었다. 또 환자 각방에 TV와 방송시설이 연결되어 환자들은 방에서 미사 참여를 하도록 한 것은 세심한 배려로 여겨졌다. 성당 안에서 신부님께서 갑자기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였다. 우리의 말은 즉시 방송을 통해 환자들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환자를 방문했을 때 환자들은 더 친밀감있게 대하는 것 같았다. 이곳에는 환자 1인당 2명의 스텝이 배치되며

총 50명의 환자와 100명의 스텝이 있다고 한다. 이들 중 1/3은 수녀회 소속의 훈련된 간호사들이고 직업적인 전문 치료사, 향요법 치료사(Aromatherapist), 미용사, 족병 치료사(Chiropodist)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봉사자들이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구성되어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요셉 호스피스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호스피스의 실상과 비교를 하게되었다. 한국의 호스피스는 1965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느린 성장을 하다가 90년 이후 급성장하면서 50여 개 정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행정가, 환자, 의료인들의 인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시설, 재정, 인력, 보험수가 등의 행정적, 법적 뒷받침과 제도화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다.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호스피스/완화요법이 구미, 유럽의 수준에 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가 100병상도 못되는 점, 독립호스피스 기관이 5개도 못미친다는 점 등을 볼 때 수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구미, 유럽의 이상적인 호스피스 수준을 향해 우리나라의 호스피스가 열려 있으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호스피스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여정의 마지막 길목에서, 누구나 인간답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여러 형태의 호스피스가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외국을 다녀 올 때마다 더욱 강렬하게 일어난다.